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

- * 글 : 전은숙
- * 그림 : 안병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12쪽
- * 대상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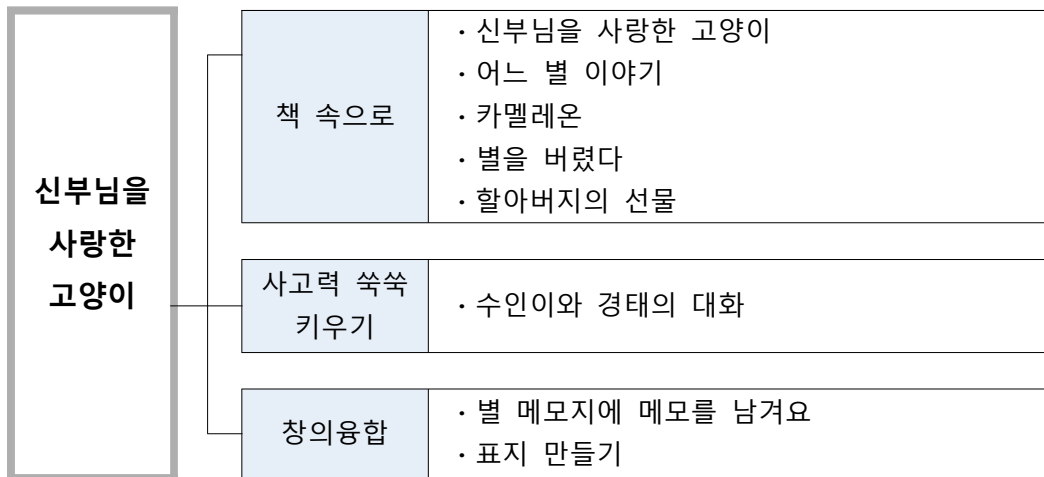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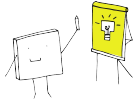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일생의 화두인 ‘꿈’, ‘나의 일’, ‘돈’, ‘도덕성’, ‘삶과 죽음’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다섯 편의 이야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십대에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저학년 시절에는 ‘좋아하는 것=꿈’이 되지만, 조금 더 자라면 좋아한다고 다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요.(「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장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어느 별 이야기」) 그러면서 나의 꿈, 나의 일, 돈에 대한 생각도 구체화됩니다.(「카멜레온」)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떤 관계나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되고.(「별을 버렸다」) 이별과 죽음의 의미도 생각하게 됩니다.(「할아버지의 선물」)

이 책에는 다섯 가지 주제를 담은 다섯 개의 동화가 담겨 있습니다. 꿈, 나의 일, 돈, 도덕성, 삶과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생각하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마다 독특한 색의 공감, 풍자, 감동을 담고 있어 쉽게 읽히지만,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아 혼자보다 함께 읽고 토론해 본다면 사고의 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목차

-책의 목차를 살펴봅시다.

※ (1~2)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의 목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해 봅시다.

1.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
2. 어느 별 이야기
3. 카멜레온
4. 별을 버렸다
5. 할아버지의 선물

1. 다섯 가지의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섯 번째 이야기인 「할아버지의 선물」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주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도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 (3~5)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어 신부님 곁에 있게 해 주세요.’

도둑고양이로 태어났지만 신부님을 사랑한 나비는
두 다리로 걷기,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화장하기, 요리하기 등
사람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기도와 노력이 하늘에 닿아

나비 앞에 커다란 날개를 단 천사가 나타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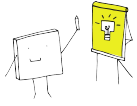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바람의 언덕으로 가 천 일 동안 빗물을 받아먹으며 기다려라.’

천사의 말에 따라 천 일을 보낸 나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3. 고양이는 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나요?

4. 나도 누군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나요?

5. 나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나는 늘 성당 담벼락 그늘에 앉아 ①미사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 인간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②지배한다고 믿고 있어.
 - 해와 달, 비와 바람이 그곳에서 나를 ③알은체했습니다.
 - 온몸이 ④만신창이가 된 채 기어오는 검둥이였습니다.
 - 빨랫줄 위에 ⑤가지각색의 색깔로 나란히 널린 글자들은 참 예뻐했습니다.
- (나) 한 발짝씩 내딛는 모양새가 무척 힘겹게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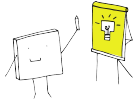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 | | | | |
|---------|---|---|--|
| ① 미사 | • | • | ㉠ 모양이나 성질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
| ② 지배하다 | • | • | ㉡ 가톨릭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 |
| ③ 알은체하다 | • | • | ㉢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다. |
| ④ 만신창이 | • | • | ㉣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
| ⑤ 가지각색 | • | • | ㉤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

2. (나)의 밑줄 친 낱말 ‘모양새’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

이를 참고로, ‘모양새’을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지금 네 꼴은 정말 우스워. 왜 인간이 되겠다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검둥이와 말대꾸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가 이해할 필요 없어!”

어둠 속에서 검둥이의 눈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반짝거렸습니다. 쉽게 물러설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야.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믿고 있어. 땅을 파괴하고, 나무를 잘라내고 숨도 쉴 수 없게 하고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썩지 않는 비닐을 땅에 묻고, 먹기 위해 동물들을 키워. 자연을 거스르고 사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어. 그런데 넌 지금 그런 인간이 되겠다는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여기 있었구나. 세상을 다 뒤졌어. 널 찾았으니 이제 됐다.”

검둥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 밑으로 손톱에 할퀴어 살이 움푹 패인 상처가 깊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낸 상처.

“검둥아…… 넌 나를 항상 비웃었잖아.”

“아니, 널 항상 사랑했어.”

검둥이는 내게 얼굴을 갖다 대고 소리 없이 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푸른 보리들이 바람을 따라 누우며 순식간에 붉은 파도처럼 변했습니다.

검둥이는 내게 얼굴을 갖다 대고 소리 없이 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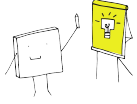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 ”

1. 나비와 검둥이는 각각 무엇을 사랑했나요?

나비	검둥이

2. 나비는 왜 검둥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랐나요?

3. 책에서 나비는 검둥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만약 나비가 검둥이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의 빈칸을 나비의 말로 채워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어느 별 이야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 쇠똥구리가 낚아 온 글자는 노란색 ‘엄마’와 파란색 ‘사과’였습니다. 염소는 빨랫줄에서 꼬들꼬들 잘 마른 두 글자를 거뒀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커다란 탁자 위에 척 펼쳐 놓았습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문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염소는 작은 별의 작가입니다. 염소는 처음에 ‘엄마’를 놓고, 그 다음에 ‘사과’ 글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기 위해 만년필로 위에다 이렇게 덧붙여 썼습니다.

(중략)

‘별레가 가득한 사과 나라에 심술궂은 우리 엄마가 잡혀 왔습니다.’

염소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야기가 들어 있어. 이 정도면 세상에 뿌려도 될 것 같아.”

(나) “내 욕심으로 별을 어지럽혔어. 정말 미안해.”

축 처진 하마에게 별의 친구들은 따듯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염소가 하마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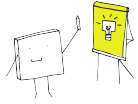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냐. 자기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 말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멋지고 소중한. 우리 모두 너의 다림질이 무척 그리웠어.”

1. 작은 별에 사는 동물들은 각각 어떤 일을 했나요? 각 동물의 역할을 정리해 보세요.

동물	역할
쇠똥구리	
염소	
하마	
흰 비둘기 두 마리	

2. 나도 하마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때 염소처럼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있었나요?

3. 작은 별의 염소가 되어 ‘엄마’와 ‘사과’를 써서 이야기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카멜레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버지는 내게 새 친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녀석이라 엄청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종알종알 진실을 말하는 비둘기를 사야 할지, 더러운 것을 먹는 카멜레온을 사야 할지 말이죠.

“더러운 인간! 더러운 인간!”

비둘기가 이렇게 말하는 통에 아버지는 카멜레온을 샀습니다. 이놈의 재주가 얼마나 신기한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재주란, 자기 주위에 있는 것 중 제일 더러운 것을 찾아 꿀꺽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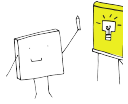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멜레온은 접혀 있던 혀를 모조리 길게 꺼내 금고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축축한 혀가 고무줄처럼 사정없이 쭉쭉 늘어나더니 금은보화와 돈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모두를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삼켜 버렸습니다.

(다) 아버지가 카멜레온의 뒤에서 도끼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카멜레온이 순식간에 혀를 길게 꺼내 아버지를 휘감아 꿀꺽 삼켰습니다.

카멜레온이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죽을힘을 다해 녀석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1. 카멜레온의 재주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카멜레온을 키운다면 무엇을 먹이로 주고 싶나요?
2. 더러운 것을 먹는 카멜레온이 이 집의 돈을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다)에서 카멜레온은 아버지를 삼켜 버리고, 나를 쫓아옵니다. 만약 카멜레온이 정말 있다면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할까요?
4. 돈을 더러운 돈과 깨끗한 돈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더러운 돈	깨끗한 돈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별을 버렸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돈이 있는데도 별 메모지를 안 사 주는 엄마가 미웠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았지.

딱 한 장을 뺐어. 두 장은 들킬지도 모르니까.

‘한 장은 모를 거야…… 괜찮아.’

(나) 나는 필통을 꺼내 제일 좋아하는 연필을 들었어.

첫 메모는 아주 소중한니까.

‘ ① ’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당장 내일이라도 아빠가 집에 올 것 같았어.

나는 아빠에게 적은 메모를 일기장에 잘 끼워 넣었어. 일요일에 병원에 가게 되면 아빠 사물함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 올 거야.

두 번째 메모지도 준비했어. 그리고 잘 깎은 연필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

‘ ② ’

이 메모는 엄마에게 못 줄지도 몰라. 새 메모지가 나한테 생긴 걸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다) ‘아빠의 병원비를 도둑질했어.’

나는 가방에서 별 메모지를 꺼냈어. 다 던져 버리고 싶었어. 울고 싶기도 했고. 그렇지만 딱 한 장만 더 써 보고 싶었어. 연필을 꺼냈어.

‘미안해, 아빠.’

그리고 그것을 강물에 띄워 보냈어. 메모지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수풀에 걸려 살살 떨리고만 있었어.

1. 수인이가 엄마 서랍에서 가져온 돈은 어디에 쓰일 돈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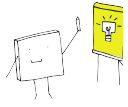
2. (나)의 ①, ②에 수인이는 어떤 메모를 썼을까요? 각각 적어 보세요.

⇒ ① :

② :

3. (가), (나), (다)에서 수인이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해서 적어 보세요.

(가)	
(나)	
(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할아버지의 선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이클을 끌고 나가는 경태를 할아버지가 불러 세웠다.

“오늘은 그거 타지 말고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어디? 나 친구랑 약속 있어.”

“갈 데가 있다니까 그러네.”

“할아버지 혼자 가면 안 돼?”

(나) “할아버지 아까 말이야……. 사진 찍지 말지.”

“영정사진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경태야, 나도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조명 한번 받았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그런 날이 와.

경태는 할아버지 말이 알쏭달쏭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배고프다. 집에 가자.”

경태는 할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저녁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경태는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사이클을 보았다. 천천히 사이클 앞으로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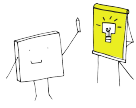
‘석 달 넘게 폐지를 주워 산 사이클.’

경태는 발로 사이클을 툭 찼다. 다 사이클 때문인 것 같았다.

1. (가)에서 할아버지는 사이클을 타러 나가고 싶어 하는 경태를 억지로 데리고 어디를 가나요? 경태와 할아버지가 갔던 곳을 적어 보세요.

2. 할아버지는 왜 경태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갔던 걸까요?

3. 경태가 그렇게 아끼던 사이클을 발로 차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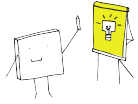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별을 버렸다」에서 수인과 「할아버지의 선물」에서 경태는 각각 다른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서로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두 친구의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수인	
경태	
수인	
경태	
수인	
경태	

2. 두 친구 중 한 친구를 골라 응원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encouraging letter to either Su-in or Kyung-tae.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별 메모지에 메모를 남겨요

※ 「별을 버렸다」에서 주인공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별 메모지에 남깁니다. 각각 단편의 주인공들은 메모지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을까요? 아래 별 메모지를 채워 보세요.

나비가 검둥이에게:

하마가 염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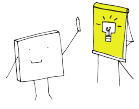
내가(부자 아들) '달'에게 :

경태가 할아버지에게:



내가 등장인물 중 한 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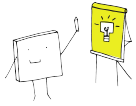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표지 만들기

1. 다섯 가지 이야기 중 가장 재밌게 읽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2. 그 이야기가 가장 재밌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그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해 주세요.
4. 복디자이너가 되어 내가 고른 단편으로 이 책의 표지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예시 답안) 「신부님을 사랑한 고양이」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다. 나도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p> <p>2. (예시 답안) 할아버지가 멋진 자전거를 사 주셨을 것 같다. 나도 첫 자전거를 할아버지가 사 주셨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그때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p> <p>3. 신부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신부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p> <p>4. (예시 답안) ***와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서 좋아했다.</p> <p>5. (예시 답안) 사람이 되어 신부님을 찾아갔지만, 신부님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다.</p>						
3쪽	<p>1. ①-㉠ / ②-㉡ / ③-㉢ / ④-㉣ / ⑤-㉤</p> <p>2. (예시 답안) 집집마다 대문의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다.</p>						
4쪽	<p>1. 나비-신부님(인간) / 검둥이-나비</p> <p>2. 검둥이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나비가 하는 일(사람이 되려는 것)을 비웃었기 때문에.</p> <p>3. 예시 답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 나를 위해 여기까지 와 주어 너무 고마워.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p>						
5쪽	<p>1. 쇠똥구리: 연못에서 글자를 낚아 동그랗게 빛은 뒤에 뭉쳐진 글자를 천천히 굴러 염소에게 가져간다. 염소: 글자를 하나씩 떼어 물기를 짰 뒤에 빨랫줄에 던다. 그런 뒤에 그 글자로 멋진 문장을 만든다. 하마: 문장을 다림질한다. 다리미가 고장 나면 커다란 엉덩이로 글자를 다린다. 흰 비둘기 두 마리: 문장의 양쪽을 물고 별똥별 위로 던진다.</p> <p>2. (예시 답안) 회장에서 떨어지고 부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부회장을 하기 싫었다. 하지만 부회장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학급을 위해 일했다.</p> <p>3. (예시 답안) 사과로 만든 집에는 엄마 애벌레와 아기 애벌레가 살고 있다.</p>						
6쪽	<p>1. 더러운 것을 먹는 것. (예시 답안) 넘쳐나는 쓰레기를 카멜레온의 먹이로 주고 싶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 같다.</p> <p>2. (예시 답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쌓아둔 돈이기 때문이다.</p> <p>3. 예시 답안) 범죄자들을 삼킬 것 같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꿀꺽 삼켜버릴 것 같다.</p> <p>4. 더러운 돈: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 등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 깨끗한 돈: 예시 답안) 스스로 일해서 열심히 번 돈.</p>						
7쪽	<p>1. 아빠의 병원비</p> <p>2. ① : (예시 답안) 아빠, 꼭 나올 거예요!</p> <p>② : (예시 답안) 엄마, 힘내세요!</p> <p>3.</p> <table border="1" data-bbox="268 1787 1369 1930"> <tr> <td data-bbox="272 1794 336 1854">(가)</td> <td data-bbox="341 1794 1364 1854">⇒ (예시 답안) 엄마 몰래 돈을 훔치는 거라 조마조마할 것 같다. 약간의 죄책감도 있지만 곧 메모지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td> </tr> <tr> <td data-bbox="272 1861 336 1895">(나)</td> <td data-bbox="341 1861 1364 1895">⇒ (예시 답안) 사고 싶던 메모지에 글을 써서 행복하지만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다.</td> </tr> <tr> <td data-bbox="272 1901 336 1930">(다)</td> <td data-bbox="341 1901 1364 1930">⇒ (예시 답안) 나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힘들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td> </tr> </table>	(가)	⇒ (예시 답안) 엄마 몰래 돈을 훔치는 거라 조마조마할 것 같다. 약간의 죄책감도 있지만 곧 메모지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나)	⇒ (예시 답안) 사고 싶던 메모지에 글을 써서 행복하지만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다.	(다)	⇒ (예시 답안) 나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힘들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가)	⇒ (예시 답안) 엄마 몰래 돈을 훔치는 거라 조마조마할 것 같다. 약간의 죄책감도 있지만 곧 메모지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나)	⇒ (예시 답안) 사고 싶던 메모지에 글을 써서 행복하지만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다.						
(다)	⇒ (예시 답안) 나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힘들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8쪽	<p>1. 고물상에 가서 폐지 주운 돈을 받고, 슈퍼에 가서 외상값을 갚은 다음에 이발소에 가서 경태와 함께 머리를 자른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경태에게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다.</p> <p>2.(예시 답안) 건강이 안 좋아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경태와 추억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다. 또 경태가 모르는 것도 알려 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p> <p>3. (예시 답안) 할아버지가 사이클을 사 주려고 폐지를 모으며 고생했던 게 떠오른 것 같다. 사이클을 발로 찾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를 혼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p>												
9쪽	<p>1. 예시 답안)</p> <table border="1" data-bbox="268 607 1326 1176"> <tr> <td data-bbox="268 607 363 705">수인 이</td> <td data-bbox="363 607 1326 705">⇒ 예시 답안) 나는 아빠의 병원비인 줄 모르고 엄마가 모아 놓은 돈을 훔쳐어. 너무 죄송하고 속상해.</td> </tr> <tr> <td data-bbox="268 705 363 804">경태</td> <td data-bbox="363 705 1326 804">정말 속상하겠다. 나는 할아버지가 지금껏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툭툭대기 일쑤였어.</td> </tr> <tr> <td data-bbox="268 804 363 902">수인 이</td> <td data-bbox="363 804 1326 902">나도 마찬가지로야. 엄마는 늘 나를 위해 애쓰셨는데, 내 메모지를 사 주기 싫어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td> </tr> <tr> <td data-bbox="268 902 363 1001">경태</td> <td data-bbox="363 902 1326 1001">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져. 그리고 너무 죄송할 것 같아.</td> </tr> <tr> <td data-bbox="268 1001 363 1099">수인 이</td> <td data-bbox="363 1001 1326 1099">나도야. 아빠가 더 아프면 다 내 탓일 것만 같아. 우리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잘하자. 나도 내 잘못을 엄마에게 말할래.</td> </tr> <tr> <td data-bbox="268 1099 363 1176">경태</td> <td data-bbox="363 1099 1326 1176">잘 생각했어. 나도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네가 썼던 메모처럼 나도 매일 할아버지에게 작은 메모를 남길래.</td> </tr> </table> <p>2. (예시 답안)</p> <p>(예시 답안)</p> <p>수인이에게,</p> <p>수인아, 네가 엄마의 돈을 훔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p> <p>하지만 그걸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p> <p>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어때?</p> <p>별 메모지에 적은 편지도 아빠 엄마에게 전달하고 말아야.</p> <p>두 분 다 정말 기뻐하실 거야.</p> <p>힘내, 너희 아빠가 얼른 퇴원하시길 나도 기도할게!</p> <p>***가</p>	수인 이	⇒ 예시 답안) 나는 아빠의 병원비인 줄 모르고 엄마가 모아 놓은 돈을 훔쳐어. 너무 죄송하고 속상해.	경태	정말 속상하겠다. 나는 할아버지가 지금껏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툭툭대기 일쑤였어.	수인 이	나도 마찬가지로야. 엄마는 늘 나를 위해 애쓰셨는데, 내 메모지를 사 주기 싫어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경태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져. 그리고 너무 죄송할 것 같아.	수인 이	나도야. 아빠가 더 아프면 다 내 탓일 것만 같아. 우리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잘하자. 나도 내 잘못을 엄마에게 말할래.	경태	잘 생각했어. 나도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네가 썼던 메모처럼 나도 매일 할아버지에게 작은 메모를 남길래.
수인 이	⇒ 예시 답안) 나는 아빠의 병원비인 줄 모르고 엄마가 모아 놓은 돈을 훔쳐어. 너무 죄송하고 속상해.												
경태	정말 속상하겠다. 나는 할아버지가 지금껏 나를 위해 일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툭툭대기 일쑤였어.												
수인 이	나도 마찬가지로야. 엄마는 늘 나를 위해 애쓰셨는데, 내 메모지를 사 주기 싫어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경태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져. 그리고 너무 죄송할 것 같아.												
수인 이	나도야. 아빠가 더 아프면 다 내 탓일 것만 같아. 우리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잘하자. 나도 내 잘못을 엄마에게 말할래.												
경태	잘 생각했어. 나도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보려고. 네가 썼던 메모처럼 나도 매일 할아버지에게 작은 메모를 남길래.												
10쪽	<p>(생략)</p> <p>(가이드) 내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들에게 쪽지를 남겨 보고, 마지막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p>												

	중 한 사람에게 쪽지를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1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시 답안) 「별을 버렸다」 2. (예시 답안) 수아의 마음이 잘 느껴졌다. 3. (예시 답안) 다 던져 버리고 싶었어. 울고 싶기도 했고. 그렇지만 딱 한 장만 더 써 보고 싶었어. 4. (가이드) 각 단편 중 하나를 골라, 제목으로 정하고 그 단편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표지에 들어가는 책 제목, 글과 그림 작가, 출판사명 등 표지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